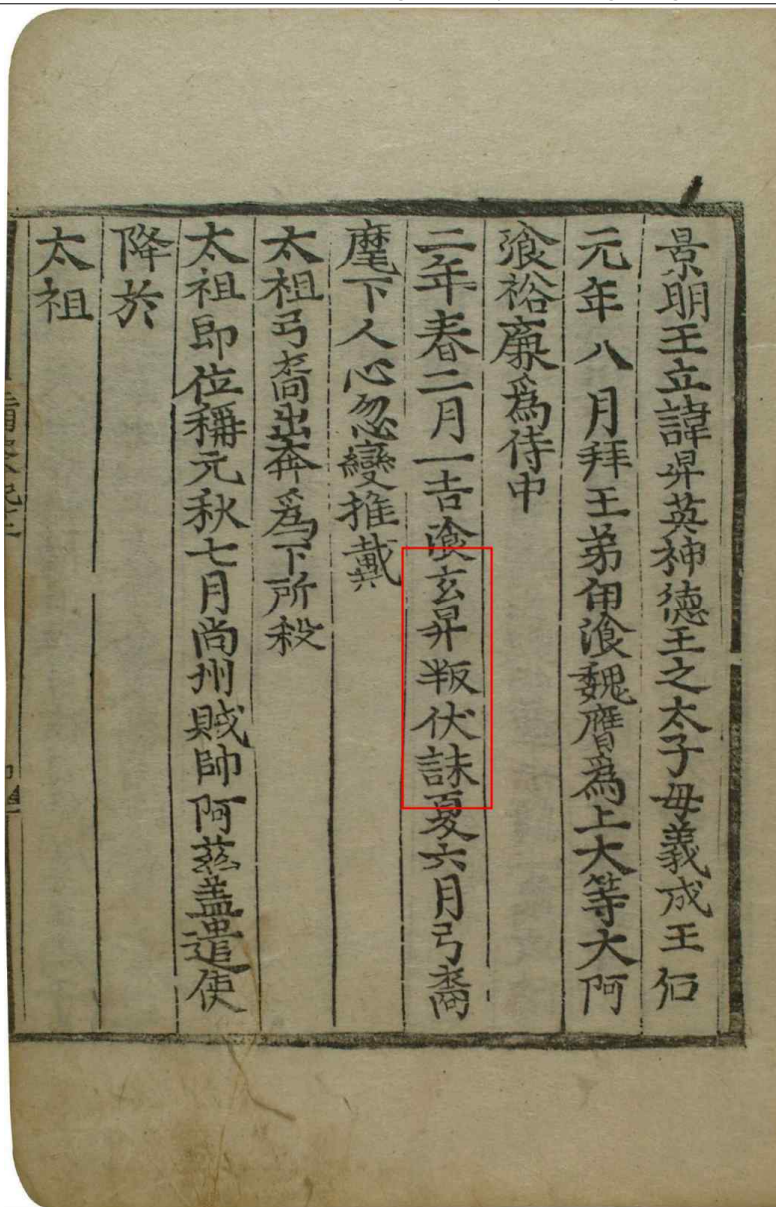


제 3장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의 선조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역대 인물 종합정보시스템, 영변지 등 옛 문헌에 보면 신라 시대와 고려시대 선조들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현재 <연주현씨 대동보>의 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한 선조들이 대부분이다.

현승(玄昇, 918년)

삼국사기 제12권 신라본기, 918년(신라 경명왕 2년) 2월 미상 (음)
현승이 반역하여 사형을 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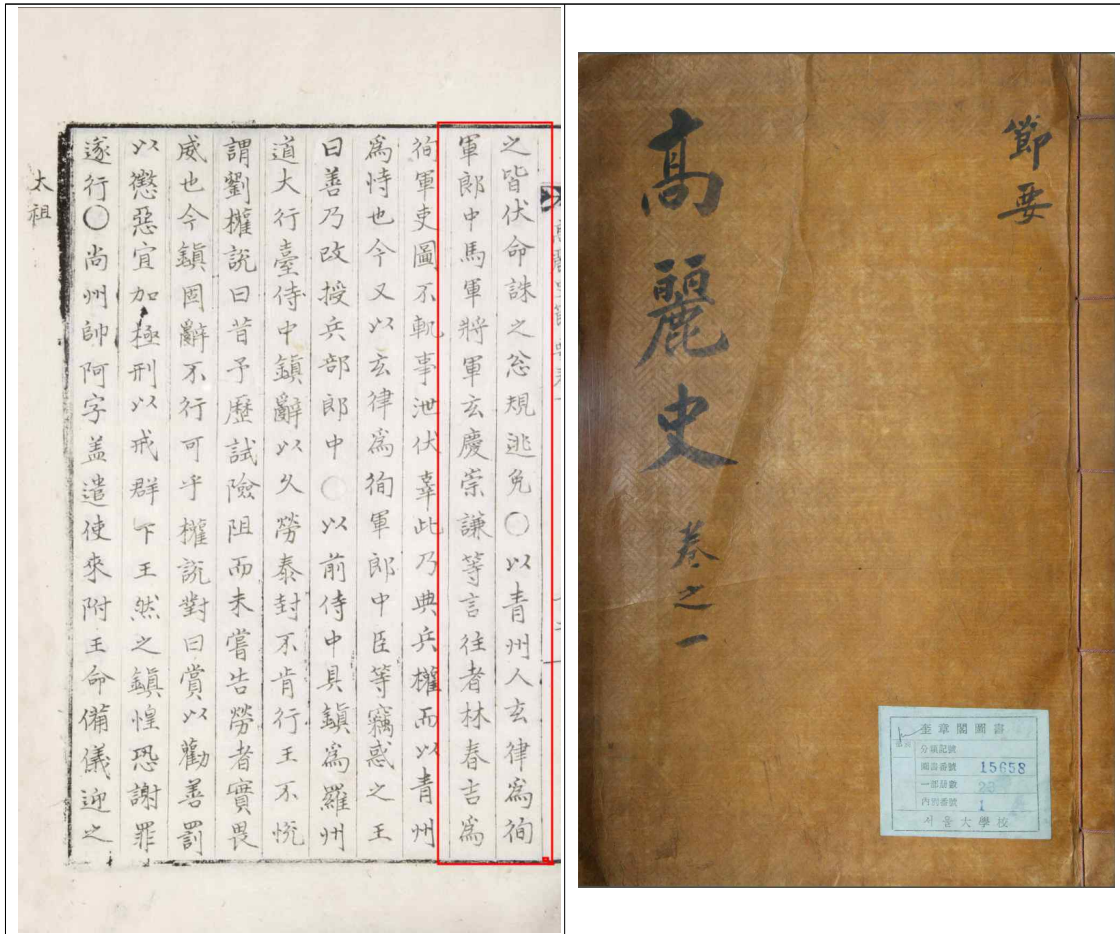
현률(玄律, 918년)

고려사에 현씨에 대한 첫 기록은 ‘서기 918년 9월 20일(음) 경인(庚寅) 순군낭중(徇軍郎中) 현율(玄律)을 병부낭중(兵部郎中)으로 임명하였다.’이다. 현율은 고려 전기의 무신으로, 기록과 같이 918년(태조 원년)에 순군낭중(徇軍郎中), 병부낭중(兵部郎中)을 지냈다. 청주 사람으로, 태조(太祖)가 현율을 순군 낭중(徇軍郎中)으로 삼으니, 마군장군 배현경과 신승겸(申崇謙)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임춘길(林春吉)이 순군리(徇軍吏)로 있으면서 반란을 도모하다가 일이 탄로되어 사형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병권을 잡고 있으며, 자기 고향(청주)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 또 현율을 순군낭중(徇軍郎中)으로 임명하신다고 하니 저희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조도 이 의견에 대해 옳게 여기고, 다시 현율의 관직을 병부낭중(兵部郎中)으로 바꾸어 임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시조 현담윤 이 전 시대의 인물로 족보상에 기록이 없다.

고려사절요 권1, 918년(고려 태조 원년) 09월 미상 (음)

배현경 등의 반대로 청주인 현률을 병부낭중에 임명하다

○청주(靑州) 사람 현률(玄律)을 순군낭중(徇軍郎中)으로 삼았다. 마군장군(馬軍將軍) 배현경(裵玄慶)과 신승겸(申崇謙) 등이 말하기를, “전에 임춘길(林春吉)이 순군리(徇軍吏)로 있을 때, 반역을 도모하였다가 일이 누설되자 죄를 자백하고 처형된 일이 있는데, 이는 병권(兵權)을 잡고서 청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현률을 순군낭중으로 삼으시니, 신들은 저으기 의아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옳다.”라고 하고, 이에 병부낭중(兵部郎中)으로 고쳐서 임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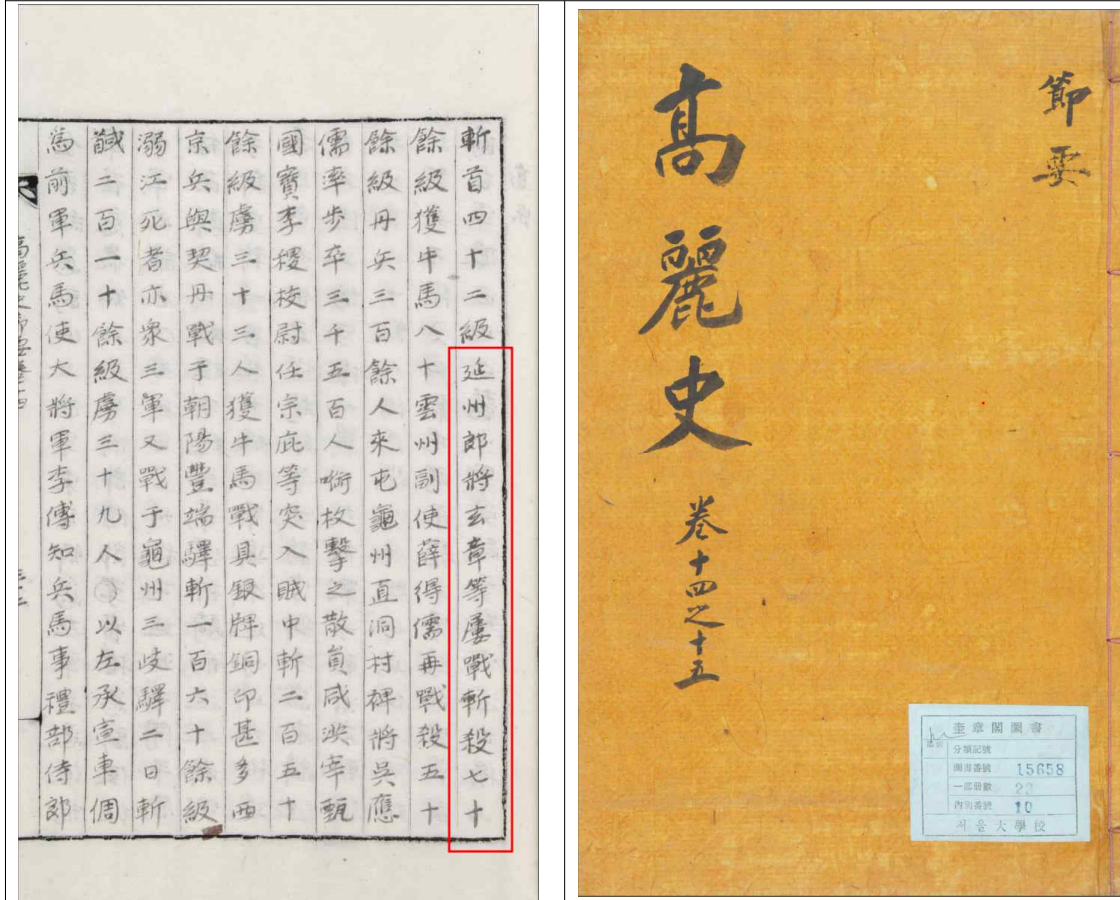


현장(玄章, 1216년)

1012년(고려 현종3년) 거란 소손녕 침범 시 연주현 낭장(현감) 현장 등이 격파하여 거란족을 퇴치하였다. 족보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

고려사절요 1216년(고려 고종 4년) 09월 미상 (음)	
고려군이 각지에서 거란군을 격퇴하다	
○창주분도장군(昌州分道將軍) 김공식(金公奭)이 거란병과 창주에서 싸워 42명의 목을 베었다. <u>연주낭장(延州郎將) 현장(玄章)</u> 등도 여러 차례 싸워 70여 명의 목을 베고, 소와 말 80마리를 노획하였다. 운주부사(雲州副使) 설득유(薛得儒)도 재차 싸워 50여 명의 목을 베었다. 거란병 300여 인이 와서 귀주(龜州)의 직동촌(直洞村)에 둔을 쳤다. 비장(裨將) 오응유(吳應儒)가 보졸(步卒) 3,500인을 이끌고 입에 하무를 물고 〈조용히 가서〉 공격하였다. 산원(散員) 함홍재(咸洪宰)·견국보(甄國寶)·이직(李稷)과 교위(校尉) 임종비(任宗庇) 등이 적진에 돌입하여 250여 명의 목을 베고 33인을 포로로 잡았으며, 노획한 소와 말, 무기·은패(銀牌)·동인(銅印)이 매우 많았다. 서경(西京)의 병사들이 거란과 조양(朝陽)의 풍단역(豐端	

驛)에서 싸워 160여 명의 목을 베었다. 강에 빠져 죽은 자도 역시 많았다. 삼군(三軍)이 또 귀주(龜州)의 삼기역(三歧驛)에서 이틀 동안 싸워, 210여 명의 목을 베고 39인을 포로로 잡았다.



현효철 (玄孝哲, 1269년)

현효철은 고려 후기 임연 처단을 기치로 저항을 일으켰던 연주(延州) 지방민이다.

고려의 대몽항쟁 당시, 임연 처단을 기치로 저항을 일으켰다. 북계민 저항의 주동자였던 서북면병마사영 기관(記官) 최탄(崔坦)을 보좌하면서 서북계 여러 지역의 관리를 살해하고 몽골로 투항하였다. 이런 공로로 몽골 조정으로부터 은패를 받았고, 이후 동녕부의 천호에 임명되었다.

1269년(원종 10) 10월에 북계민 저항의 주동자였던 서북면병마사영 기관(記官) 최탄(崔坦)과 한신(韓愼)을 비롯하여 삼화현인 교위 이연령(李延

齡)·정원도호낭장 계문비(桂文庇) 등과 더불어 ‘무진정변(戊辰政變)’으로 집권한 임연(林衍)의 처단을 내세우며 저항을 일으켰다. 그런데 연주 사람이 임연 정권에 대한 저항에 가담한 것은 대몽 전쟁기 지역 사회의 황폐화 및 몽골과의 긴장 관계에 따른 새로운 전쟁의 조짐에 맞선 지역 사회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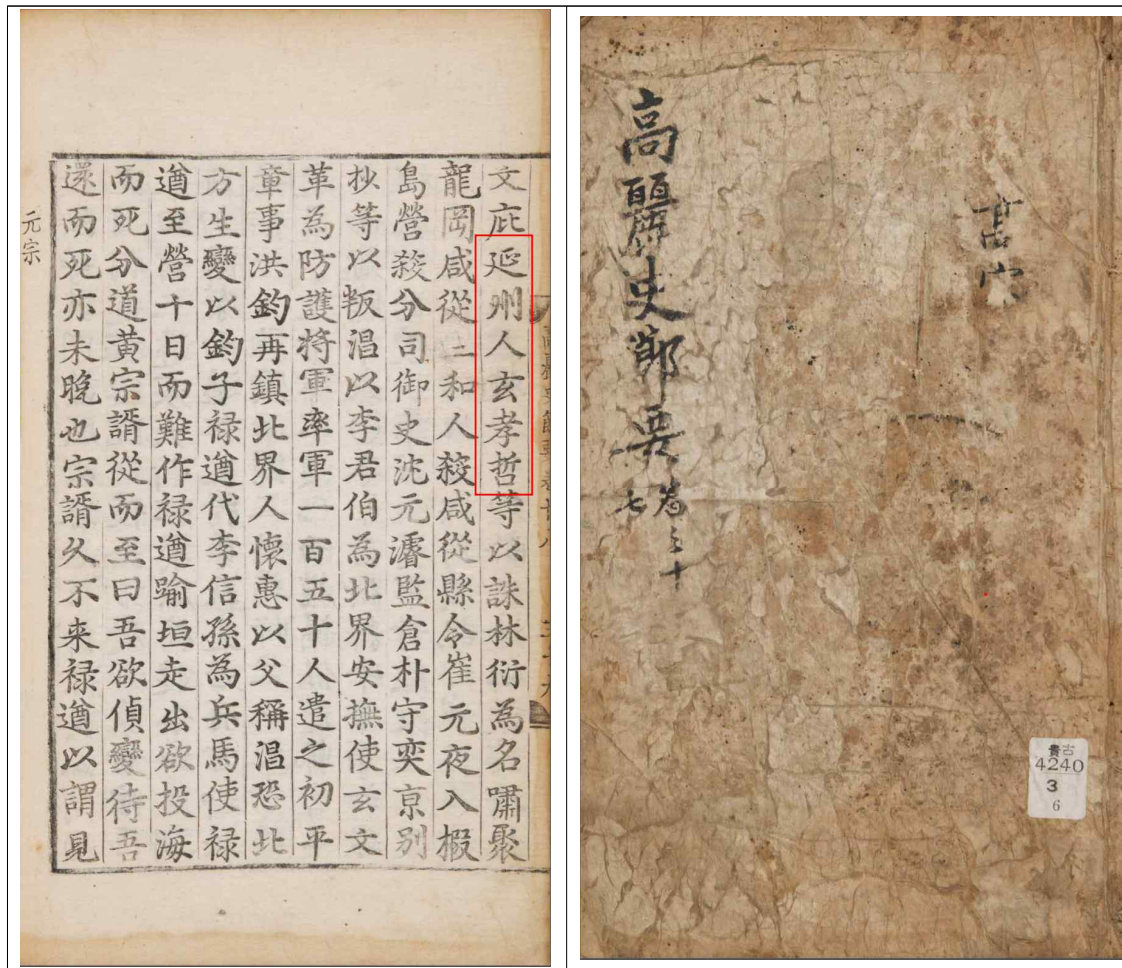
이들이 저항을 일으킨 시기는 임연의 원종 폐립에 따른 몽골의 압력이 가중되어 전쟁 기운이 감돌던 시점이었다. 이들은 용강(龍岡)·함종(咸從)·삼화현(三和縣)의 사람들을 모아 함종 현령 최원(崔元)을 죽이고, 밤에 가도(槓島)의 군영에 들어가 분사어사 심원준(沈元濬), 감창 박수혁(朴守奭)과 경별초(京別抄) 등을 죽였다.

이들이 처단한 지방관과 경별초는 무신정권의 전국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들이다. 이로 볼 때 이들의 저항은 무신정권의 정국 운영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서경유수(西京留守) 및 용주(龍州)·영주(寧州)·철주(鐵州)·선주(宣州)·자주(慈州) 등 5개 주의 관리들을 살해하고 의주부사 김효거(金孝巨) 등 22명을 붙잡아 몽골로 투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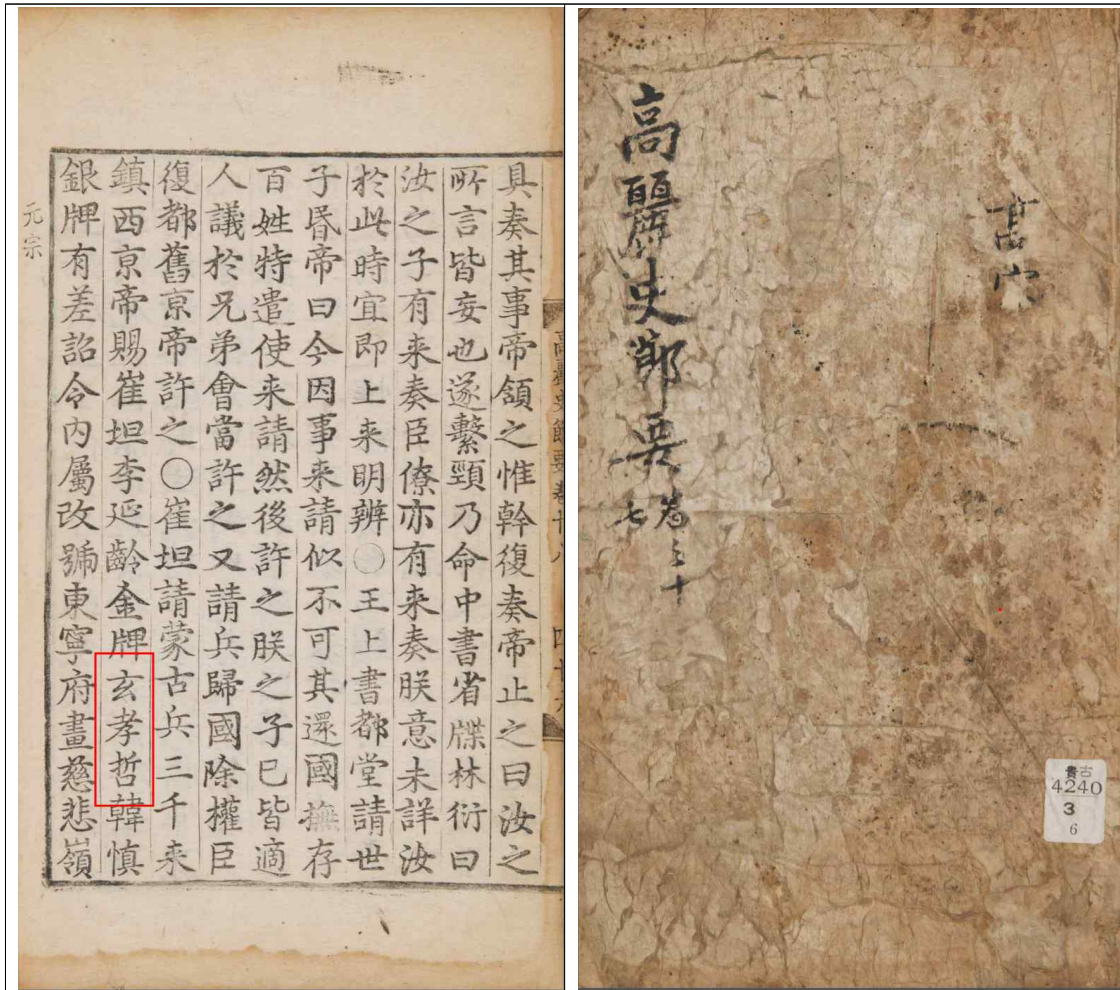
이들이 투항하자 몽골은 이들 지역에 동녕부(東寧府)를 설치하였다. 이런 공로로 현호철은 몽골 조정으로부터 은패(銀牌)를 받았고, 동녕부의 천호(千戶)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후 그의 행적은 1285년(충렬왕 11)에 동녕부의 천호 한신·최탄과 함께 천호 계문비가 관할하는 사람들을 심문하여 재상 염승익(廉承益)을 무고한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족보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

고려사절요 18권, 1269년(고려 원종 10년) 10월 미상 (음) 최탄과 한신 등이 왕의 폐위에 반발하여 난을 일으키다
○서북면병마사 기관(西北面兵馬使 記官) 최탄(崔坦)·한신(韓愼)과 삼화현(三和縣) 사람 전교위(前校尉) 이연령(李延齡), 정원도호낭장(定遠都護郎將) 계문비(桂文庇), 연주(延州) 사람 현효철(玄孝哲) 등이 임연(林衍)을 죽인다는 명분으로 용강(龍岡)·함종(咸從)·삼화(三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종현령(咸從縣令) 최원(崔元)을 죽이고 밤에 가도영(槓島營)에 들어

가 분사어사(分司御史) 심원준(沈元濬), 감창(監倉) 박수혁(朴守奭), 경별초(京別抄) 등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왕창(王曄)은 이군백(李君伯)을 북계안무사(北界安撫使)로 삼고 현문혁(玄文革)을 방호장군(防護將軍)으로 삼아 군사 150인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게 하였다. 당초에 평장사(平章事) 홍균(洪鈞)이 두 번 북계(北界)를 진무(鎮撫)하였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마음에 품어 아버지라고 불렀다. 왕창은 북방에 변이 생길까 두려워 홍균의 아들 홍녹주(洪祿適)로 이신손(李信孫)을 대신하여 병마사(兵馬使)로 삼았는데, 홍녹주가 병영에 이른지 열흘 만에 난이 일어났다. 홍녹주는 담을 넘어 도망쳐 나와 바다에 몸을 던져 죽으려고 하였다. 분도(分道) 황종서(黃宗誥)가 따라와 말하기를, “제가 변을 정탐하겠으니,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종서가 오래도록 오지 않으니 홍녹주는 해를 입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갑자기 어떤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영주(營主)를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었다. 홍녹주가 이에 돌아오니, 최탄이 사람을 시켜 홍녹주에게 말하기를, “전왕께서 두 번 상국에 입조하여 동방을 편안케 하시어 백성들이 그 은덕을 입었습니다. 임연(林衍)은 진주(鎭州)의 일개 병졸인데 어떤 공덕이 있어 마음대로 국권을 농단하여 우리 왕을 폐합니까. 조정에 충신이 없으니 우리들이 격분하여 악의 수괴를 죽이고 우리 왕을 다시 받들고자 합니다. 앞서, 평장사께서 두 번이나 이 지방을 진무하시며 우리 백성의 목숨을 살리셨고, 상서(尙書)께서 지금 다시 와서 안무하는데 선친의 품모가 있으니, 우리들은 차마 덕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홍녹주가 말하기를, “그대들이 나의 부친을 잊지 않고 연장하여 후인(後人)에게 미치니, 어찌 이처럼 감동스러운가. 만약 진실로 〈은혜를〉 잊지 않았는다면 분도와 전리(電吏)를 풀어주게.”라고 하니 최탄이 그를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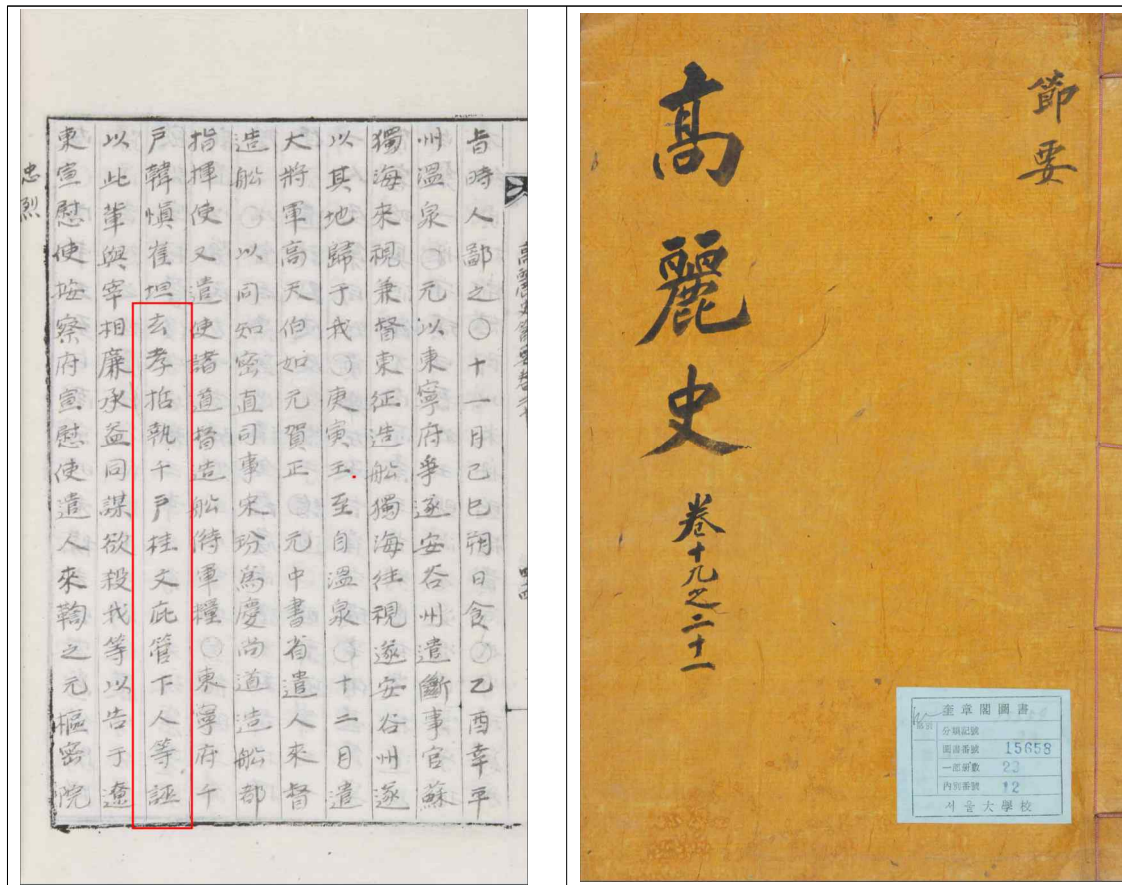
고려사절요 18권, 1270년(고려 원종 11년) 02월 미상 (음) 몽고 황제가 서경을 동녕부로 삼다
○최탄(崔坦)이 몽고 군대 3천이 와서 서경(西京)을 진무하기를 요청하였다. 황제가 최탄·이연령(李延齡)에게 금패(金牌)를, <u>현효철(玄孝哲)</u>·한신(韓愼)에게 은패(銀牌)를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조서를 내려 몽고에 내속(內屬)하고 호칭을 동녕부(東寧府)로 고치며 자비령(慈悲嶺)으로 경계를 삼으라고 명령하였다.



고려사절요 20권, 1285년(고려 충렬왕 11년) 12월 미상 (음)

동녕부 천호 한신 등의 무고가 판명나다

○동녕부(東寧府)의 천호(千戶) 한신(韓愼)·최탄(崔坦)·현효철(玄孝哲)이 천호 계문비(桂文庇)가 관할하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무고하기를, “이 무리는 재상 염승익(廉承益)과 공동으로 모의한 뒤 저희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요동(遼東)의 선위사(宣慰使)와 안찰부(按察府)에 보고하였다. 선위사가 사람을 보내어 이들을 국문하였고, 원(元)의 추밀원(樞密院) 또한 사신과 요동도(遼東道)의 안찰사(按察使) 및 첨사(簽事) 등을 함께 보내와서 이들을 신문하였다. 왕이 김주정(金周鼎)·조인규(趙仁規)·유비(柳庇)를 파견하여 원의 사신과 함께 하도록 하고 염승익을 동녕부에 보내어 변명하자, 한신 등이 무고임을 인정하였다.



현문혁(玄文赫) 장군과 열녀 현문혁의 처

현문혁(文赫, 文奕으로도 표기) 장군은 시조 담윤(覃胤)공의 고손(高孫)이며 회원군(檜原君) 덕유(諱德裕)의 증손(曾孫)이다. 1269년(원종 10년) 역적방호장군(逆賊防護將軍)으로 임명되어 북계 민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1270년(고려 원종 11년)에 도원수(都元帥)로 발탁(拔擢)되었다. 고려 사절요 제18권에 현문혁 장군의 방호장군 임명 기록과 삼별초 전투에 대한 기록이 있다.

고려사절요 제18권 / 원종 순효대왕 (元宗 順孝大王) 10년
1269년(己巳년), 송(宋) 함순 5년 · 몽고 지원 6년
○西北面兵馬使記官, 崔坦, 韓慎, 三和縣人, 前校尉李延齡, 定遠都護郎將柱文庇, 延州人玄孝哲等, 以誅林衍爲名, 嘯聚龍岡, 咸從, 三和人, 殺咸從縣令崔元, 夜入槓島營, 殺分司御史沈元濬, 監倉朴守奕, 京別抄等以叛, 倡, 以李君伯, 爲北界安撫使, 玄文奕, 爲防護將軍, 率軍一百五十人遣之

○ 서북면 병마사 기관(記官) 최탄(崔坦)·한신(韓愼), 삼화현(三和縣) 사람 전 교위(校尉) 이연령(李延齡), 정원도호낭장(定遠都護郎將) 계문비(桂文庇), 연주(延州) 사람 현효철(玄孝哲) 등이 임연을 벤다는 명분으로, 용강(龍岡)·함종(咸從)·삼화(三和) 사람들을 소취(嘯聚)하여 함종 현령 최원(崔元)을 죽이고, 밤에 가도(蝦島) 영(營)에 들어가서 분사어사(分司御史) 심원준(沈元濬), 감창(監倉) 박수혁(朴守奕), 경별초(京別抄) 등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창이 이군백(李君伯)을 북계 안무사로, 현문혁(玄文奕)을 방호장군으로 삼아 군사 1백 50명을 거느려 보냈다.

현문혁 장군은 1270년(고려 원종 11년)에 도원수(都元帥)로 발탁(拔擢)되었다. 배중손(裴仲孫)과 노영희(盧永禧) 등이 삼별초(三別抄)를 거느리고 승화후(承化侯) 왕온(王溫)을 왕으로 받들고 관부(官府)를 설치하고 반란을 일으키자 이에 맞서 싸웠다.

삼별초(三別抄) : 삼별초는 좌별초·우별초·신의군(神義軍)의 3개 별초군(別抄軍)의 총칭이다. 고종 때 최우(崔瑀)가 도적을 잡기 위해 용맹한 자를 뽑아 야별초(夜別抄)를 설치했는데 뒤에 그 군사가 많아지자 좌·우별초로 나누었고, 몽골의 고려 침입 때 몽골에 잡혀갔다가 탈출해온 군사와 장정들을 모아 부대를 창설하여 신의군이라 불렀다.

배중손(裴仲孫)과 노영희(盧永禧) 등이 삼별초(三別抄)를 거느리고 승화후(承化侯) 왕온(王溫)을 왕으로 받들고 강화에 관부(官府)를 설치할 때, 강화를 탈출하여 개경(開京)으로 향했다. 이때 추격해오던 4, 5척의 적선과 맞붙어 현문혁 장군이 홀로 활을 쏘며 대적했지만, 거리가 점차 좁혀지자 그 처가 옆에서 화살을 건네주어 화살이 계속 날아갔기 때문에 적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탄 배가 얇은 곳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적들이 뒤쫓아와 쏜 화살에 현문혁 장군은 팔을 맞고서 배 가운데 쓰러졌다. 그러자 그 처는 “내가 절의를 지켜 쥐새끼 같은 무리에게 욕을 당하지 않겠다.” 하며 두 딸과 함께 물에 몸을 던져 자결했다. 적들이 현문혁 장군을 잡았으나 삼별초 군은 장군의 용기를 아깝게 여겨 살해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탈출하여 개경으로 되돌아왔다.

이듬해 현문혁 장군의 처는 직학(直學) 정문감(鄭文鑑)의 처와 함께 곧은 절개 덕분에 열녀로 표창되고 자손은 벼슬을 받았다. 현문혁 장군은 1291년(충렬왕 17) 원나라의 반적 합단(哈丹, 카단)의 잔당을 추포하는

데 공을 세웠다.

고려사절요 제18권 / 원종 순효대왕(元宗順孝大王) 11년
1270년(경오년), 송(宋) 함순 6년·몽고 지원 7년
六月, 將軍裴仲孫, 夜別抄指諭盧永僖等, 作亂, 使人呼於國中曰, 狄兵大至, 殺戮人民, 凡欲輔國者, 皆會毬庭, 須臾, 國人大會, 或有奔走四散, 爭舟渡江, 或沈沒水中, 三別抄禁人出入, 巡江大呼曰, 凡在舟不下者, 悉斬之, 聞者皆懼而下, 其或發船, 欲向古京者, 賊, 乘小艇, 追射之, 皆不敢動, 城中人, 驚駭, 散匿林藪, 童稚婦女, 哭聲滿路, 乃發金剛庫兵器, 分給軍卒, 嬰城固守, 仲孫永禧, 傾三別抄, 會市廊, 逼承化侯溫, 爲王, 署置官府, 以大將軍劉存奕, 尚書左丞李信孫, 爲左右承宣, 初, 賊, 與將軍李白起, 謀作亂, 不應, 乃殺之, 將軍玄文奕, 逃奔舊京, 賊船四五艘, 翼而追之, 文奕獨射, 飛矢相接, 其妻在側, 抽矢授之, 賊不敢近, 文奕船膠于淺灘, 賊追及之, 射中其臂, 仆於舟中, 妻曰, 吾義不爲鼠輩所辱, 遂携二女, 投江而死, 賊, 執文奕, 惜其勇, 不殺, 既而, 文奕逃還舊京.
○ 6월에 장군 배중손(裴仲孫), 야별초 지유 노영희(盧永僖) 등이 난을 일으키고, 사람을 시켜 도성 안에 외치기를, “오랑캐 군사가 크게 이르러 인민을 살육하니, 무릇 나라를 돕고자 하는 자는 모두 구정(毬庭)으로 모이라.” 하니, 잠깐 동안에 국인(國人)이 많이 모였는데, 혹은 달아나 사방으로 흩어져서 배를 다투어 강을 건너기도 하고, 혹은 물속에 침몰되기도 하였다. 삼별초가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강을 돌아다니며 크게 외치기를, “무릇 배에서 내리지 않는 자는 모두 목을 베겠다.” 하니, 듣는 사람이 모두 두려워서 배에서 내렸다. 혹 배를 띄워 옛 서울로 향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적이 작은 배를 타고 쫓아가며 활을 쏘니, 모두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성중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흩어져 숲속에 숨고, 아이와 부녀들의 우는 소리가 거리에 요란하였다. 이에 금강고(金剛庫)의 병기를 꺼내어 군졸에게 나눠 주고 성을 둘러싸고 굳게 지켰다. 중손과 영희가 삼별초를 거느리고 시랑(市廊)에 모여 승화후(承化侯) 온(溫)을 협박하여 왕으로 삼고, 관부(官府)를 설치하고 대장군 유존혁(劉存奕), 상서좌승 이신손(李信孫)을 좌우승선으로 삼았다. 과거에 적이 장군 이백기(李白起)에게 함께 난을 일으키기를 꾀하였으나 응하지 않으니 죽였다. 장군 현문혁(玄文奕) 이 도망하여 옛 서울로 달아나니, 적선 4, 5척이 날개처럼 양쪽으로 쫓았다. 문혁이 홀로 활을 쏘아 화살을 계속 날려보내고, 그 아내가 옆에서 화살을 뽑아 주자 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다가 문혁의 배가 얕은 여울에 붙으니, 적이 쫓아와서 팔을 쏘아 맞히어 배 가운데 쓰러졌다. 아내가 말하기를, “나는 의리상 쥐 같은 놈들에게 욕을 당할 수 없다.” 하고, 드디어 두 딸을 끌고 강에 빠져 죽었다. 적이 문혁을 붙잡았으나 그 용맹을 아깝게 여겨 죽이지 않았는데, 얼마 뒤에 문혁이 옛 서울로 도망하여 돌아왔다.

1291년(충렬왕 17년) 원나라의 반적 합단(哈丹)의 잔당을 추포하는 데 공을 세웠다.

합단(哈丹) :원나라 말기 몽골 제국의 반란군 지도자로, 칭기즈 칸의 막내 동생 옷치긴의 후손이다. 그는 1290년 요동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배한 후 고려로 침입했다. 합단군은 함경도와 강원도, 충청도 일대를 약탈하며 충주와 개성 부근까지 진출했으나, 1291년 고려군과 원나라 연합군에 의해 연기 대첩에서 격파당했다.

25.都元帥公實記

公諱文嫻(麗史作奕)高麗門下侍郎平章事延山君諱覃胤之玄孫金紫光祿大夫叅知政事大司空檜原君諡正獻諱德裕之曾孫也生而天姿英邁驍勇絕倫好讀書善騎射卜居于漣川郡南進祥里而築楠松亭逍遙其上以書籍自娛麗元宗朝徵拜將軍累立功元宗十一年庚午(宋度宗咸淳六年)拜都元帥鎮江華時六月將軍裴仲孫盧永禧等率三別抄(軍隊別名有夜別抄左別抄右別抄之名)叛于江華擅發府庫嬰城固守賊之始謀也將軍李白起不應乃殺之賊又以直學鄭文鑑爲承宣使文鑑曰與其富貴於賊寧潔身於泉下即投水而死其妻亦投于水其時公見事不濟將欲後圖逃奔舊京(今開城府)賊兵四五艘異以追之公獨射之飛矢相接其夫人在側抽矢授之賊不敢近俄而矢已盡而船膠于淺灘賊追及之射中公仆於舟夫人曰吾義不爲鼠輩所辱遂携二女投水死事載麗史及三綱行實詳見李益齋先生文集(即櫟翁稗說)及文獻備考諸書時人爲之作詩曰跳梁叛賊在江華獨有玄公爲國家可惜夫人投水死古今貞烈孰能加又曰不幸船膠沒賊兵携兒投浪最傷情至今灘水流鳴咽疑是精魂哭泣聲元宗十二年下敕教命將軍玄文奕妻直學鄭文鑑妻投水而死不爲賊所辱節義可尙特爲加封贈官其子孫○按漣川邑誌玄將軍文嫻殉節於三別抄亂其夫人携二女投水死墓在縣南十里上深谷里云而今失傳將欲設壇薦苾而尙今未遑不勝痛恨之至

도원수공실기(都元帥公實記)

(전략) 타고 나신 자질(資質)이 고매(高邁)하시며 용맹(勇猛)이 월등(越等)하시고 겸(兼)하여 글 읽기와 말타기 활쏘기를 좋아하셨다. 연천군남면진상리(漣川郡南面進祥里)에 사시어 남송정(楠松亭)이라는 정자(亭子)를 지으시고 그 정상(亭上)에서 소요(逍遙)하시며 항상(恒常)서적(書籍)을 즐겨 읽으셨다.

때는 고려원종(高麗元宗)때에 장군(將軍)을 제수(除授)받으셨다. 그 후(後)수차에 걸쳐 국가(國家)에 공훈(功勳)을 세우시니 원종(元宗)十一年(西紀一二七〇年) 경오(庚午)에 도원수(都元帥)로 발탁(拔擢)되시어 강화(江華)를 진합(鎭合)함에 있어서 때 마침 六月에 장군배중손(將軍裴仲孫) 노영희(盧永禧) 등(等)이 삼별초(三別抄)(군대의 이름으로 야별초(夜別抄)좌별초(左別抄)우별초(右別抄))군(軍)을 거느리고 강화(江華)에서 반란(叛亂)을 일으켜 부고(府庫)(국고(國庫))를 제 마음대로 열고 양곡(糧穀)과 무기(武器) 등(等)을 도적(盜賊)질 하고 성(城)에 들어가 고수(固守)하더라. 적병(賊兵)들이 첫 음모(陰謀)할 때 장군(將軍) 이백기(李白起)에게 위협(威脅)하나 백기(白起)가 의리(義理)를 지켜 응(應)하지 않고 죽었으며, 적(賊)이 또 직학(直學)(도서관장) 정문감(鄭文鑑)으로써 승선사(承善使)(정삼품(正三品) 왕(王)의 비서관)로 삼고자 하니 정문감(鄭文鑑)이 하는 말이 너희들과 같이 부귀(富貴)를 탐내어 도적(盜賊)질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물에 투신자살(投身自殺)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백배(百倍) 낫을 것이라 하고 물에 뛰어들어 자살(自殺)하니 그 처(妻)도 역시(亦是) 부군(夫君)의 절조(節操)에 따라 물에 뛰어들어 자살(自殺)하였다.

公께서는 평란(平亂)하지 못할 것을 짐작하시고 장차후일(將次後日)을 도모(圖謀)하고자 구경(舊京)(지금의 개성(開城))으로 도주하시니 적병(賊兵)들이 사오(四五)척의 배를 타고 좌우(左右)로 쫓아오므로 공께서는 홀로 활을 쏘기 시작(始作)하는데 그 부인(夫人)은 곁에서 화살통에 있는 화살을 빼어 주시니 한치의 양보(讓步)도 없이 적중(適中)하게 되어 적(賊)은 감(敢)히 접근(接近)을 하지 못하던 차(次)에 안타깝게도 화살이 다 없어지고 배는

얇은 여울에 다다르자 적(賊)이 쫓아오면서 활을 쏘아 공은 배 바닥에 엎드리시니 부인(夫人)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義)롭지 못한 쥐 같은 도적(盜賊)놈들에게 욕(辱)을 당(當)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물에 투신(投身)하여 자살(自殺)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두 딸을 데리고 다같이 물에 뛰어들어 자살(自殺)하셨다.

이 사실(事實)은 고려사기(高麗史記)와 삼강행실록(三綱行實錄)에 자세(仔細)히 기재(記載)되어 있으며 이익재선생문집(李益齋先生文集)과 문헌비고(文獻備考)와 여러 서적(書籍)에 명기(明記)되어 있으므로 세상(世上)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터이며 그 때의 시인(詩人)들은 공의 부부(夫婦)의 절조(節操)를 찬양(讚揚)하는 시(詩)를 지어 세상(世上)에 널리 알리고 있다.(중략)

이 사실(事實)은 연천읍지(漣川邑誌)에 현장군문혁(玄將軍文赫)께서 삼별초란(三別抄亂)에 순절(殉節)하신 것과 그 부인(夫人)이 두 딸을 데리시고 순사(殉死)하신 것이 상세(詳細)히 기재(記載)되어 있어 후세(後世)에 전(傳)하고 있으나 그 묘소(墓所)가 현남십리(縣南十里) 깊은 산(山)골에 계시다 하지만 찾지 못하여 실전(失傳)되었으므로 장차(將次) 단(壇)을 모아 분향(焚香)을 드리고자 하나 지금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여 통탄(痛嘆)함을 금(禁)하지 못할 뿐이다.

서기 1271년(원종元宗 12년)에 원종(元宗)께서 장군 현문혁(玄文赫)의 처(妻)와 직학(直學) 정문감(鄭文鑑)의 처(妻)가 도적에게 더러운 죽음을 당하기 전에 물에 빠져 자살하였으니 절조(節操)와 의리(義理)가 가상(嘉尙)하다 하여 그 자손들에게 벼슬을 주도록 하라고 특명을 내렸다.

고려사절요 제19권에 현문혁 장군 부인의 절개에 대한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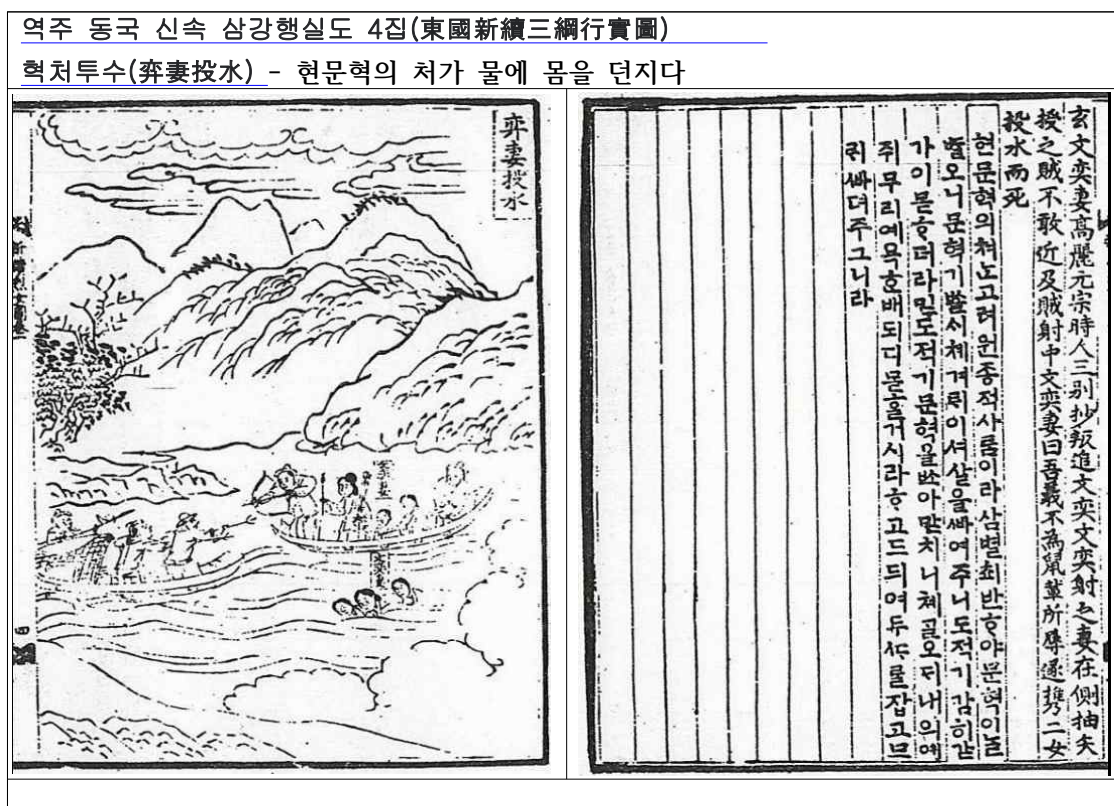
고려사절요 제19권 / 원종 순효대왕 (元宗順孝大王) 12년
1271년(신미년), 송(宋) 함순 7년 · 몽고 지원 8년
○冬十月，赦，命賜戰亡孤兒，職，討三別抄者子，賞職，無子者，復其父母，及妻，其自賊中歸順者，復給其田，無田者，特加優恤，其從賊之徒，賊平之後，潛還鄉里者，亦各勿問，俾安其業，將軍玄文奕妻，直學鄭文鑑妻，投水而死，不爲賊所污，節義可尙，加封贈，官其子孫。
○ 겨울 10월에 사면령을 내렸다. 명하여 전망(戰亡) 고아들에게 관직을 주고, 삼별초를 토벌한 이의 아들은 관직으로 상주며, 아들이 없는 이에게는 부모와 처의 부역을 면제하였다. 적진에서 귀순한 자는 다시 전지를 주며, 전지가 없는 자는 특별히 후하게 구휼하고, 적을 따라갔던 무리로서 적이 평정된 후에 몰래 고향으로 돌아온 자도 역시 모두 불문에 붙여서 그 직업에 편안히 정착하게 하였다. 장군현문혁(玄文奕)의 처 와 직학(直學) 정문감(鄭文鑑)의 처는 물에 몸을 던져 죽었는데, 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은 절의가 가상하므로 봉증(封贈)을 내리고 그 자손을 벼슬시켰다.

이 미담은 세상(世上)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그때의 시인(詩人)들은 공

부부(夫婦)의 절조(節操)를 찬양(讚揚)하는 시를 지어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있다.

날뛰는 도적(盜賊)들이 강화(江華)에 있었는데
현공(玄公) 홀로 나라를 위(爲)하여 고수(固守)하셨도다.
아! 참으로 가석(可惜)하도다
부인(夫人)께서 강(江)물에 투신(投身)하여 자살(自殺)하셨으니
그 정렬(貞烈)을 고금(古今)을 통(通)하여 누가 능(能)히 더할 사람이 있으리오.
불행(不幸)하게도 적병(賊兵)에게 죽지 않으시려고 물에 빠지시고
부인(夫人)께서 딸을 데리시고 부군(夫君)을 따라 물에 빠져 순국(殉國)하셨으니
이보다 더한 마음 아픔이 또 어디 있으리오.
지금 유유(悠悠)히 흐르는 물소리는
두 분의 충혼(忠魂)을 조위(弔慰)하는 곡성(哭聲)인가 한다.

현문혁 장군 부인의 절개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광해군 때(1617년) 간행된 동국 신속 상감행실도에 남아 있다.



玄文奔妻高麗元宗時人 三別抄叛追文奔 文奔射之 妻在側抽矢 授之賊不敢近 及賊射中文奔 妻曰吾義不爲 鼠輩所辱 遂携二女投水而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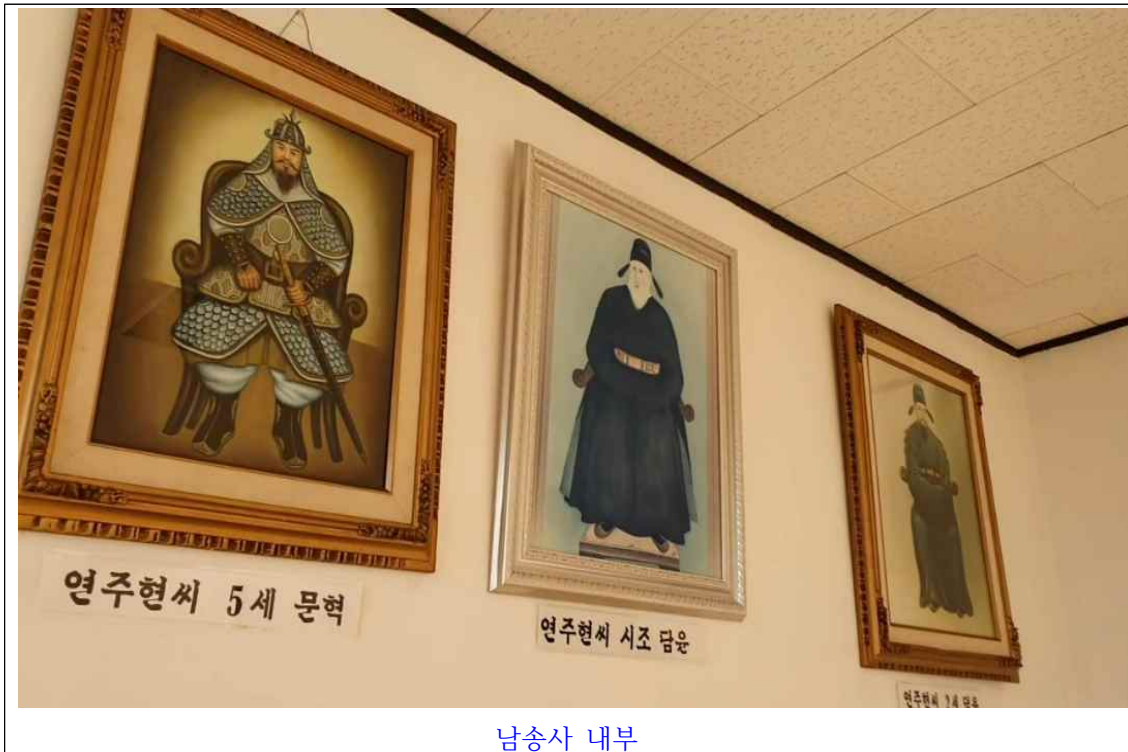
현문혁의 처는 고려 원종 적 사름이라 삼별초 반하야 문혁이늘 쫓으니 문혁기 쫓시 체 겨터 이셔 살을 싸여 주니 도적이 감히 가까이 못하더라 민 도적이 문혁을 쏘아 맞치니 체 곁오디 내 의에 쥬 무리에 욱흔 배 되디 못홀 거시라 하고 드디여 두 썩를 잡고 므리 싸며 주그니라.

현문혁(玄文奔)의 처는 고려 원종 적 사람이다. 삼별초가 배반하여 문혁을 따라오니, 문혁이 활을 쏠 때 처가 곁에 있어 화살을 빼어 주니, 도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 이윽고 도적이 문혁을 쏘아 맞히니, 처가 말하되 내가 의로우니 쥬같은 무리에게 욱보일 바가 되지 못할 것이라 하고, 드디어 두 딸을 붙들고 물에 빠져 죽었다.

현문혁(玄文赫) 장군께서 삼별초란(三別抄亂)에 활약하신 것과 그 부인이 두 딸을 데리시고 순사(殉死)하신 것이 이처럼 후세에 전하고 있으며 그 묘소가 현남십리(縣南十里) 깊은 산골에 계시지만 찾지 못하여 실전(失傳)되었기에 후손들이 연천군 군남면에 사당 남송사(楠松祠)를 짓고 뒤편 언덕에 단(壇)을 만들어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



남송사 전경



남송사 내부



남송사 뒤 언덕 묘소



현문혁 장군 제단비

41.楠松祠創建事蹟碑

京畿道漣川郡南進祥里之東園有廟貌異然門庭秀麗額以楠松祠而行路之人莫不敬禮者延州玄氏都元帥公縣監公司諫公司果公副護軍公司果公六賢妥靈之所也嚮者文化院長文壽按譜牒而謁不佞曰先祖都元帥公麗代名將忠節炳炳事載麗史而墓儀失傳久雉寓慕之情今欲設位致祭願宗伯設位規模致奠儀式無不昭示余以後生末學何散當是役屢辭不獲乃廣搜先賢遺事以聞之即爲詢謀諸宗創建楠松祠而每歲十月初日奉香于神位前遠近參祀者莫不欽服也丙子秋又曰設位事既閒命矣六賢之潛德懿行不可無文敢請余撮其大要叙之如左都元帥公諱文燾延州人侍郎平章事景憲公諱單胤之玄孫大司空正獻公諱德裕之曾孫祖諱昇吏部典書考諱璋全州節度使同知樞密院事公生而天姿英邁驍勇絕倫卜居漣川而築楠松亭以書籍自娛元宗朝拜將軍以都元帥鎮江華島矣三別抄軍叛舉入城陰殺官長掠奪人民擅發府庫其勢凶險公見事不濟將爲後圖渡海赴京而賊共翼而追之公力射之夫人抽矢授之賊不敢近俄而矢盡船膠夫人曰吾義不爲鼠輩所辱遂携二女而投水死公遽馳上京率兵殄滅之時人爲之作詩曰跳梁叛賊在江華獨有玄公爲國家可惜夫人投水死古今貞烈孰能加衆人皆

哀悼之王曰公及夫人之忠節可尙特加官封贈褒其子孫

縣監公諱起文官建功將軍行龍驤衛副護軍朔寧縣監

司諫公諱玉衡字治圭文科司諫院司諫

司果公諱應淑字彥澄武科司果

副護軍公諱應國宣祖朝扈聖原從功臣副護軍

司果公諱璋武司果

嗚呼都元帥公之卒世代遙遠屢經兵禍既失衣履之葬矣今以後孫崇慕之誠公之英靈始有憑依

之處其懔懔之貞忠大節因此徵信於百世之下也是役也夙夜匪懈至誠從事者郡守永煥鍾武鍾壽
檀紀四三二九年丙子仲秋節

族後孫 庠淳 謹撰
二十代孫 文壽 敬書

남송사를 창건한 사적비문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의 동원에 사당집이 우뚝하고 정문이 수려하니 남송사라고
현판하여 길가는 사람이 경례하지 않는 이 없는 곳이 있으니 연주현씨 도원수공·현감공·
사간공·사과공·부호군공·사과공 여섯 현인의 영령을 뵈신 곳이다.

지난날에 문화원장인 문수(文壽)가 족보를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선조 도
원수공은 고려의 명장으로 충절이 빛나시어 사적이 고려사에 실려 있는데 묘소가 실전
하여 오래 추모하는 정성을 꺾었기에 이제 신위를 설치하고 제사를 올리고자 하니 원
컨대 증백은 신주되시는 일과, 제사 올리는 절차를 명시하여 주시오 하였다. 내 후생의
말하기로 어찌 감히 이 일을 감당하리오.

여러 번 사양하나 허락을 받지 못하고 이에 선현의 전사를 널리 찾아 들려주었더니
즉시 모든 일가에 협의하여 남송사를 창건하고 매년 十月初日에 신위 앞에 봉향하니 원
근의 참사하는 자가 흠복하지 않는 이 없더라. 병자년(丙子年) 가을에 또 찾아와서 말하
기를 신위 설치하는 일은 이미 명한대로 행하였음에 육현(六賢)의 숨은 덕행과 아름다
운 사적에 대한 기록이 없지 못하여 감히 청합니다 하였다. 내가 그 대략을 베껴서 다음
과 같이 서술한다.

도원수공의 휘는 문혁(文懔)이니 연주인이다. 고려시랑 평장사 경현공 휘 담윤의
현손이요, 대사공 정현공 휘 덕유(德裕)의 증손이며 할아버지 휘는 승(昇)이니 이부전서
이고, 아버지의 휘는 장(璋)이니 전주절도사·동지추밀원사이시다. 공은 나면서부터 자품
이 영매하고 용맹이 절륜하셨다. 연천 땅에 살며 남송정을 짓고 서적으로써 즐기더니 원
종조(元宗朝)에 장군을 배하여 도원수로써 강화도에 진주하였는데 삼별초군이 반란을
일으켜 성안에 들어와 관장을 음살하고 인민을 약탈하여 부고를 천발하니 그 형세가 흉
험하였다.

공은 일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장차 후일을 도모하고자 바다를 건너 서울로 올라올 때
적병이 좌우로 추격하니 공은 힘껏 활을 쏘고 그 부인은 화살을 빼어주어 적병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한참 후에 화살이 다하고 배가 부딪치니 부인이 말하기를 「내 의
리가 쥐 같은 무리의 욕된 바가 될 수 없다」 하고 드디어 두 딸을 이끌고 몸을 물에 던
져 죽었다.

공은 급히 서울로 달려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진멸시켰다. 그 때 사람들이 시를 지어
이르기를 「날뛰는 반적들이 강화도에 들어왔는데 홀로 현공(玄公)이 국가를 위해 싸웠
도다. 슬프다 부인이 물에 던져 죽음이며, 예나 이제 정렬(貞烈)이 누가 더 할소냐」 라
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애도하였다. 임금은 「공과 부인의 충절이 가상하다」 하고 특별
히 관직을 더하고 그 자손에게 증직 표창하였다.

현감공의 휘는 기문(起文)이니 벼슬은 건공장군 용양위 부호군과 삭녕현감을 하였다.
사간공의 휘는 옥형(玉衡)이요 자는 치규(治圭)니 문과에 올라 사간원 사간을 하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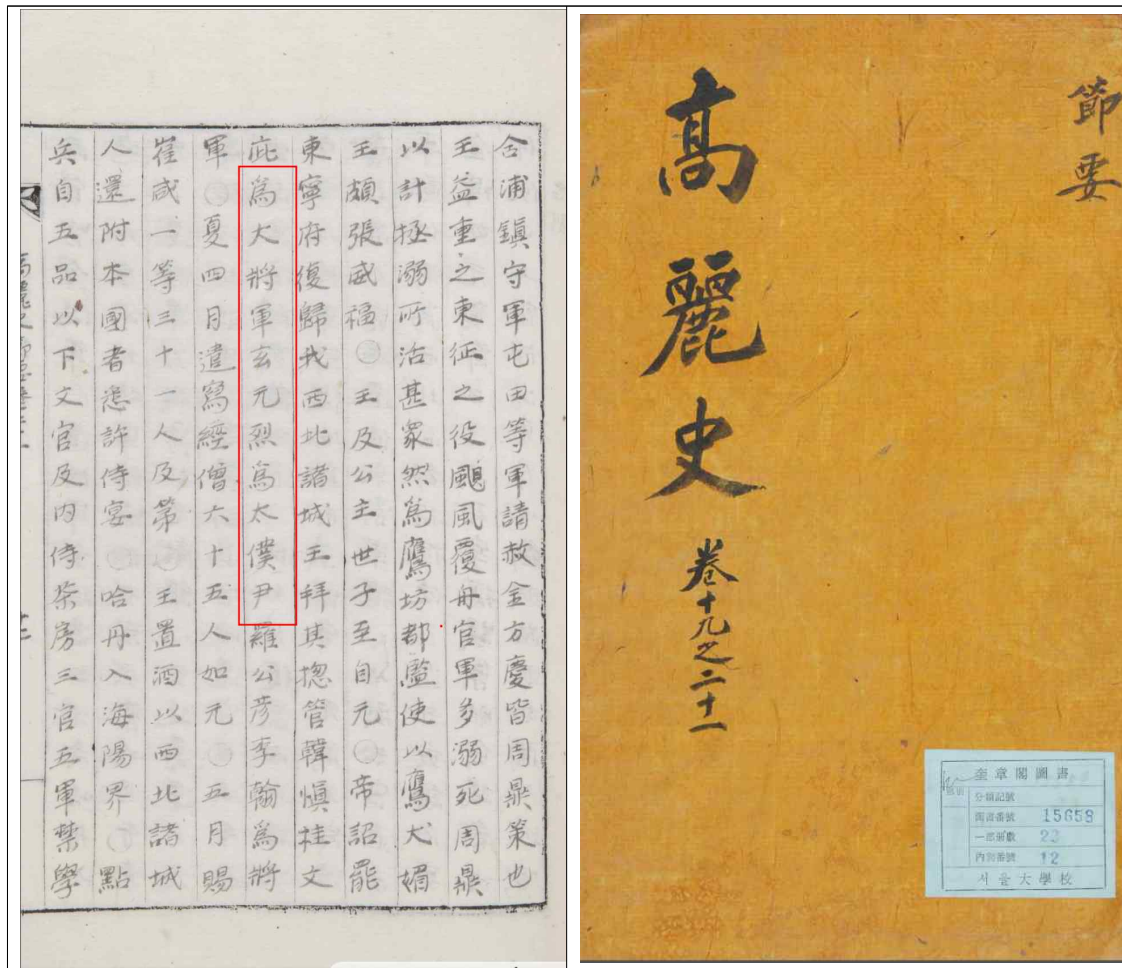
사과공의 휘는 응숙(應淑)이요 자는 언징(彦徵)이니 무과로 사과를 하였다.

부호군공의 휘는 응국(應國)이니 선조조에 호성원종공신 부호군을 하였다.
 사과공의 휘는 위(瑋)이니 무과에 올라 사과를 하였다.
 아! 슬프다. 도원수공께서 돌아가신지 세대가 요원하고 여러번 병화를 겪어서 이미 의리(衣履)의 장사한 곳을 잃었더니 이제 후손의 숭모하는 정성으로 공의 영령이 의지하고 의탁할 곳이 비로소 생겼으니 그 혁혁하신 정충과 대절이 이로 인하여 백세후에 증명될 것이다. 이 일에 주야로 힘쓰고 지성껏 종사한 자는 군수인 영환과 종무와 종수 등 모든 사람이다.
 단기 四三二九年(서기(西紀)一九九六年) 중추월에
 족후손 상순(庠淳)이 삼가 짓고
 이십대손(二十代孫) 문수(文壽)가 삼가 쓰다.

현원렬(玄元烈, 3세, 1290년)

상서공(尙書公) 덕수(德秀)의 장남으로 시조 현담윤의 장손이다. 고려 충렬왕 36년에 태복윤 벼슬을 지냈으며 벼슬이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에 이르렀다고 족보에 기록되어있다. 고려사절요에 기록이 있다.

고려사절요 1290년(고려 충렬왕16년) 03월 미상 (음) 元(원)이 東寧府(동녕부)를 고려에 반환하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동녕부(東寧府)를 폐지하고 서북쪽의 여러 성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왕이 그곳의 총관(總管)인 한신(韓愼)과 계문비(桂文庇)를 대장군(大將軍)에 제배하고 <u>현원렬(玄元烈)을 태복윤(太僕尹)으로</u> , 나공언(羅公彦)과 이한(李翰)을 장군(將軍)으로 삼았다.



원(元)나라 지원(至元, 혜종의 연호) 6년(1340년)에 고려의 이연령, 최탄, 현원열 등이 부(府), 주(州), 현(縣), 진(鎭) 60성(城)으로써 귀순해왔다. 지원 8년에 서경을 고쳐 동녕부(東寧府)로 삼았다.

원사(元史)지리지(地理志)

元至元六年, 李延齡 崔坦 玄元烈等, 以府州縣鎭六十城來歸, 八年, 改西京為東寧府,

<https://naver.me/xjLGtMWo>

현신우(玄臣祐, 1363년)

현신우는 고려시대사 인물 고려 후기 신축 호종 1등공신에 책록된 공신이다.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 제2차 침공 당시,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 서북면에 침입하여 개경(開京)이 함락되고 공민왕이 복주(福州: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로 남천(南遷)하였습니다. 이때 호군(護軍)으로서 왕과 공주·태후를 모시고 임진강을 건너 남행하여 수종(隨從)하였다. 1363년(공민왕 12) 신축호종일등공신(辛丑扈從一等功臣)에 서훈(敍勳)되었다. 족보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

고려사 세가 40권, 1363년(고려 공민왕 12년) 3월 15일 (윤) 피난에 호종했던 공신들을 녹훈하다
護軍李邦英·玄臣祐, 前護軍金天佐·金良壽·朴英祐·李乙卿·禹連·金仁雨·李光祐, 典農副正孫廉, 司僕副正孫元·劉信, 檢校上護軍朴資·申之善·張成吉·崔伯顏, 故親從護軍金承德, 中郎將金龍·崔公·朴石連, ...
〈흥왕사(興王寺)의 변란 때〉 왕을 부축하여 모시고 피난한 공으로, 서령군(瑞寧君) 유숙(柳淑),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성사달(成士達), 좌대언(左代言) 김달상(金達祥), 응양군상호군(鷹揚軍上護軍) 박춘(朴椿), 환관[宦者]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 김현(金玄), 상호군(上護軍) 이강달(李剛達)을 일등공신(一等功臣)으로 삼았고, 예의총랑(禮儀摠郎) 유실(柳實), 사재부령(司宰副令) 최충보(崔忠輔), 전교시승(典校寺丞) 김문현(金文鉉), 중랑장(中郎將) 김만(金萬)을 이등공신(二等功臣)으로 삼았다. 병력을 집결시킬 것을 건의하여 난리를 평정한 공으로 좌정승(左政丞) 유탁(柳濯)을 일등공신으로 삼았다.
또한 신축년 〈홍건적의 난리 때〉 왕을 호종(扈從)한 공을 기록하여, 사망한 우정승(右政丞) 홍언박(洪彦博), 정승(政丞)으로 추증된 정세운(鄭世雲),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 이암(李崱), 판삼사사(判三司事) 김일봉(金逸逢), 당성부원군(唐城府院君) 홍원철(洪元哲), 찬성사상의(贊成事商議) 경천흥(慶千興)·황상(黃裳), 서령군(瑞寧君) 유숙(柳淑), 봉화부원군(奉化府院君) 정송수(鄭松壽), 한양부원군(漢陽府院君) 박유문(朴有文), 사성군(泗城君) 목인길(睦仁吉), 전 밀직부사(密直副使) 허유(許猷), 판도판서(版圖判書) 김한진(金漢眞), 숙옹부좌사윤(肅雍府左司尹) 송인적(宋仁績), 전 안동도호부사(安東都護府使) 홍언유(洪彦猷),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성사달(成士達), 문예부우사윤(文睿府右司尹) 장득안(張得安),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차안도(車安道), 지신사(知申事) 원송수(元松壽), 우대언(右代言) 이색(李穡), 좌대언(左代言) 김달상(金達祥), 전 응양군상호군(鷹揚軍上護軍) 홍사우(洪師禹), 전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박원택(朴元澤), 검교평리(檢校評理) 김계(金桂), 전 상호군(上護軍) 허서(許瑞),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이량(李良), 판전의시사(判典醫寺事) 이춘영(李春榮), 전 판소부시사(判小府寺事) 황대도(黃大都), 검교평리(檢校評理) 이난수(李難守)·이천휘(李天暉)·서준(徐俊)· 현지묘(玄之妙) ·김생려(金生麗)·정지신(鄭之信)·김용려(金勇麗)·이현(李絢, 감찰집의(監察執義) 이성림(李成林), 전 대호군(大護軍) 마천린(馬天麟)·이화(李華), 종부령(宗簿令)

김광(金廣), 전 위위윤(衛尉尹) 유백(兪伯), 전 전객령(典客令) 양빈(楊贇), 사복정(司僕正) 윤송(尹松), 전의부령(典醫副令) 김군정(金君鼎), 통례문부사(通禮門副使) 조신좌(趙臣佐), 전 전객부령(典客副令) 남대강(南大剛), 전 군기감(軍器監) 김원세(金元世), 호군(護軍) 이방영(李邦英)·현신우(玄臣祐), 전 호군 김천좌(金天佐)·김양수(金良壽)·박영우(朴英祐)·이을경(李乙卿)·우련(禹連)·김인우(金仁雨)·이광우(李光祐), 전농부정(典農副正) 손렴(孫廉), 사복부정(司僕副正) 손원(孫元)·유신(劉信), 검교상호군(檢校上護軍) 박자(朴資)·신지선(申之善)·장성길(張成吉)·최백안(崔伯顔, 최바얀), 사망한 친종호군(親從護軍) 김승덕(金承德), 중랑장(中郎將) 김룡(金龍)·최공(崔公)·박석련(朴石連), 환관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 김현(金玄), 영원부원군(寧原府院君) 신소봉(申小鳳),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 김수만(金壽萬), 상호군(上護軍) 이강달(李剛達), 판내부시사(判內府寺事) 윤충좌(尹忠佐), 대호군(大護軍) 윤상(尹祥)을 일등공신으로 삼았다. 밀직부사(密直副使) 유연(柳淵), 전 개성윤(開城尹) 홍사범(洪師範)·박원경(朴元鏡), 감찰대부(監察大夫) 김속명(金續命), 전 판도판서(版圖判書) 김원명(金元命), 숙옹부우사윤(肅雍府右司尹) 김충신(金忠信), 전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 장천지(張天志),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 장백안(張伯顔, 장바얀), 전 상호군(上護軍) 경보(慶補), 검교평리(檢校評理) 홍심(洪深)·송경(宋璟), 사망한 전교시사(典校寺事) 김한룡(金漢龍), 사망한 군기감(軍器監) 김돈민(金敦民), 전 사의(司議) 박대양(朴大陽), 전 대호군(大護軍) 김아적(金阿赤, 김아치)·박보안(朴普安), 대호군(大護軍) 나광만(羅光滿)·김립견(金立堅), 삼사우윤(三司右尹) 김광을(金光乙), 군기감(軍器監) 김광을(金光乙), 전 사재령(司宰令) 김휘(金暉), 전리총랑(典理摠郎) 전녹생(田祿生), 전법총랑(典法摠郎) 권주(權鑄), 예의총랑(禮儀摠郎) 유실(柳實), 친종호군(親從護軍) 김세덕(金世德), 삼사부사(三司副使) 박린(朴璘), 전 호군(護軍) 조군옥(趙君玉), 전 수원부사(水原府使) 김흥조(金興祖), 전 전농부정(典農副正) 정세문(鄭世文), 전 호군(護軍) 김사혁(金斯革)·강복룡(康福龍)·봉인보(奉仁輔), 호군 배길(裴吉)·이봉우(李逢雨)·설송(薛松), 전의부정(典醫副正) 우현(禹顯), 군부정랑(軍簿正郎) 박사신(朴思愼), 고공정랑(考功正郎) 홍사원(洪師瑗), 검교상호군(檢校上護軍) 송충(宋忠)·김귀만(金貴萬)·박수영(朴守英)·김고도불화(金古都不花, 김구투부카), 중랑장(中郎將) 김천로(金天老)·오수(吳守)·이존경(李存敬)·조성(趙成)·박백안(朴伯顔, 박바얀)·이석축사(李石丑斯)·임우(林祐)·나원(羅元), 낭장(郎將) 이천(李遷)·장룡(張龍)·유덕(劉德)을 일등공신으로 삼았다.	
---	--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홍건적과 왜구」(나종우,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994)

「고려말 홍건적의 침입과 안동 임시수도의 대응」(이경희, 『부산사학』24, 1993)

민족대백과

현지묘(玄之妙, 1363년)

현지묘(玄之妙)는 고려 시대 인물로서 고려 후기 신축 호종 1등공신에 책록된 공신입니다. 주요 관직은 검교평리(檢校評理)를 하였다.

현지묘는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 서북면에 침입하여 개경(開京)이 점령되고 왕이 남천(南遷)할 때, 검교평리(檢校評理)로서 왕과 공주·태후를 모시고 임진강을 건너 남행하여 호종한 공으로 1363년 신축호종일등공신(辛丑扈從一等功臣)에 훈장을 받았다. 족보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민족대백과

고려사 세가 40권, 1363년(고려 공민왕 12년) 3월 15일 (윤) 피난에 호종했던 공신들을 녹훈하다
玄之妙·金生麗·鄭之信·金勇麗·李絢, 監察執義李成林, 前大護軍馬天麟·李華, 宗簿令金廣, 前衛尉尹兪伯, 前典客令楊贊, 司僕正尹松, 典醫副令金君鼎, 通禮門副使趙臣佐, 前典客副令南大剛, 前軍器監金元世,...
〈흥왕사(興王寺)의 변란 때〉 왕을 부축하여 모시고 피난한 공으로, 서령군(瑞寧君) 유숙(柳淑),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성사달(成士達), 좌대언(左代言) 김달상(金達祥), 응양군상호군(鷹揚軍上護軍) 박춘(朴椿), 환관[宦者]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 김현(金玄), 상호군(上護軍) 이강달(李剛達)을 일등공신(一等功臣)으로 삼았고, 예의총랑(禮儀摠郎) 유실(柳實), 사재부령(司宰副令) 최충보(崔忠輔), 전교시승(典校寺丞) 김문현(金文鉉), 중랑장(中郎將) 김만(金萬)을 이등공신(二等功臣)으로 삼았다. 병력을 집결시킬 것을 건의하여 난리를 평정한 공으로 좌정승(左政丞) 유탁(柳濯)을 일등공신으로 삼았다.
또한 신축년 〈홍건적의 난리 때〉 왕을 호종(扈從)한 공을 기록하여, 사망한 우정승(右政丞) 홍언박(洪彦博), 정승(政丞)으로 추증된 정세운(鄭世雲),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 이암(李崱), 판삼사사(判三司事) 김일봉(金逸逢), 당성부원군(唐城府院君) 홍원철(洪元哲), 찬성사상의(贊成事商議) 경천흥(慶千興)·황상(黃裳), 서령군(瑞寧君) 유숙(柳淑), 봉화부원군(奉化府院君) 정송수(鄭松壽), 한양부원군(漢陽府院君) 박유문(朴有文), 사성군(泗城君) 목인길(睦仁吉), 전 밀직부사(密直副使) 허유(許猷), 판도판서(版圖判書) 김한진(金漢眞), 숙옹부좌사윤

(肅雍府左司尹) 송인적(宋仁績), 전 안동도호부사(安東都護府使) 홍언유(洪彦猷),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성사달(成士達), 문예부우사윤(文睿府右司尹) 장득안(張得安),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차안도(車安道), 지신사(知申事) 원송수(元松壽), 우대언(右代言) 이색(李穡), 좌대언(左代言) 김달상(金達祥), 전 응양군상호군(鷹揚軍上護軍) 홍사우(洪師禹), 전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박원택(朴元澤), 검교평리(檢校評理) 김계(金桂), 전 상호군(上護軍) 허서(許瑞),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이량(李良), 판전의시사(判典醫寺事) 이춘영(李春榮), 전 판소부시사(判小府寺事) 황대도(黃大都), 검교평리(檢校評理) 이난수(李難守)·이천휘(李天暉)·서준(徐俊)·현지묘(玄之妙)·김생려(金生麗)·정지신(鄭之信)·김용려(金勇麗)·이현(李絢), 감찰집의(監察執義) 이성림(李成林), 전 대호군(大護軍) 마천린(馬天麟)·이화(李華), 종부령(宗簿令) 김광(金廣), 전 위위윤(衛尉尹) 유백(兪伯), 전 전객령(典客令) 양빈(楊賓), 사복정(司僕正) 윤송(尹松), 전의부령(典醫副令) 김군정(金君鼎), 통례문부사(通禮門副使) 조신좌(趙臣佐), 전 전객부령(典客副令) 남대강(南大剛), 전 군기감(軍器監) 김원세(金元世), 호군(護軍) 이방영(李邦英)·현신우(玄臣祐), 전 호군 김천좌(金天佐)·김양수(金良壽)·박영우(朴英祐)·이을경(李乙卿)·우련(禹連)·김인우(金仁雨)·이광우(李光祐), 전농부정(典農副正) 손렴(孫廉), 사복부정(司僕副正) 손원(孫元)·유신(劉信), 검교상호군(檢校上護軍) 박자(朴資)·신지선(申之善)·장성길(張成吉)·최백안(崔伯顔, 최바얀), 사망한 친종호군(親從護軍) 김승덕(金承德), 중랑장(中郎將) 김룡(金龍)·최공(崔公)·박석련(朴石連), 환관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 김현(金玄), 영원부원군(寧原府院君) 신소봉(申小鳳),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 김수만(金壽萬), 상호군(上護軍) 이강달(李剛達), 판내부시사(判內府寺事) 윤충좌(尹忠佐), 대호군(大護軍) 윤상(尹祥)을 일등공신으로 삼았다. 밀직부사(密直副使) 유연(柳淵), 전 개성윤(開城尹) 홍사범(洪師範)·박원경(朴元鏡), 감찰대부(監察大夫) 김속명(金續命), 전 판도판서(版圖判書) 김원명(金元命), 숙옹부우사윤(肅雍府右司尹) 김충신(金忠信), 전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 장천지(張天志),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 장백안(張伯顔, 장바얀), 전 상호군(上護軍) 경보(慶補), 검교평리(檢校評理) 홍심(洪深)·송경(宋璟), 사망한 전교시사(典校寺事) 김한룡(金漢龍), 사망한 군기감(軍器監) 김돈민(金敦民), 전 사의(司議) 박대양(朴大陽), 전 대호군(大護軍) 김아적(金阿赤, 김아치)·박보안(朴普安), 대호군(大護軍) 나광만(羅光滿)·김립건(金立堅), 삼사우윤(三司右尹) 김광을(金光乙), 군기감(軍器監) 김광을(金光乙), 전 사재령(司宰令) 김휘(金暉), 전리총랑(典理摠郎) 전녹생(田祿生), 전법총랑(典法摠郎) 권주(權鑄), 예의총랑(禮儀摠郎) 유실(柳實), 친종호군(親從護軍) 김세덕(金世德), 삼사부사(三司副使) 박린(朴璘), 전 호군(護軍) 조군옥(趙君玉), 전 수원부사(水原府使) 김흥조(金興祖), 전 전농부정(典農副正) 정세문(鄭世文), 전 호군(護軍) 김사혁(金斯革)·강복룡(康福龍)·봉인보(奉仁輔), 호군 배길(裴吉)·이봉우(李逢雨)·설송(薛松), 전의부정(典醫副正) 우현(禹顯), 군부정랑(軍簿正郎) 박사신

(朴思愼), 고공정랑(考功正郎) 홍사원(洪師瑗), 검교상호군(檢校上護軍) 송충(宋忠)·김귀만(金貴萬)·박수영(朴守英)·김고도불화(金古都不花, 김구투부카), 중랑장(中郎將) 김천로(金天老)·오수(吳守)·이존경(李存敬)·조성(趙成)·박백안(朴伯顔, 박바얀)·이석축사(李石丑斯)·임우(林祐)·나원(羅元), 낭장(郎將) 이천(李遷)·장룡(張龍)·유덕(劉德)을 이등공신으로 삼았다.	